◇ 특집 … 6월투쟁의 어제와 오늘

망각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함성

'87년 6월 대투쟁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6월 대투쟁이 엄청난 규모의 대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져 왔다는 사실은 공통된 견해로 나타난다.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은 서울, 부산, 광주등의 대도시를 비롯해 지방의 소도시, 읍에서조차 익히 들을 수 있었고,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었다.

6월 대투쟁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사건에서 출발한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축소·은폐시켰다는 한 신부의 폭로에서 발단하여, 국민적인 公憤이 '護憲'과 '間選制의 강행'과 맞물려 증폭됨으로써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가 강경대 열사와 김귀정열사의 죽음을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지않듯이, 6월 대투쟁의 격랑 아래에는 그것을 가능케 했던 시대적 상황이 놓여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6월 대투쟁이 그 심도와 범위에 있어서 한글세대인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엄청난 것으로 가능했던 경제적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회구성체를 바라보는 상이한 입장과 현상분석의 여러 패러다임을 가지는 정파들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당시 소위 '중산층',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와 시장 상인들의 헌신적 지원에 집착한 나머지 투쟁의 경제적 요인을 무시하고자 하는 경향마저 존재한다. 이와달리 정치적으로 위기가 창출되었다는 점은 대체로 공감되고 있는 사실이다. 호헌을 통한 장기집권의 의도가 가시적으로 분명해졌고, 각종 폭압적 조치들이 피부에 와닿는 실정이었으며 게다가 정권말기의 레임덕(Lameduck)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6·29선언은 6월 대투쟁의 가시적인 성과였다. 위기에 몰린 지배계급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보수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었으며, 몇몇 개혁조치를 통해 민중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는 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어떠한 개혁조치도 힘의 관계가 변화된다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것이다. 작금의 현실을 볼때 위의 사실은 이미 진리임이 판명되었다. 6월 대투쟁이 가져온 가시적 성과는 현재 전혀 남아있지 않다. 오히려 5공때보다도 더 많아진 양심수며, 각종 악법의 개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금융 실명제니 토지공개념이니 하는 약속은 공수표가 된지 오래이다. 부르조아 언론에서도 개혁의지의 후퇴를 질타할 정도이다. 어쩌면 우리가 노태우정권에게서 개혁이라든가 민주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환상이며, 철없는 짓거리이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태도가 어떠한 정권도 자신의 계급적 기반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간단한 사실의 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명동성당은 6·10이후 도심 시위의 구심이 되었다.

대중 정치진출 가능했던 변혁운동
조직강화로 기만적 선거 대응해야

최근 '위기정국' 혹은 '비상정국'(물론 이말은 부르조아 언론의 특이한 용어이다. 5월 투쟁은 지배계급에게 위기와 비상을 가져다 주었지만 4천만 민중에게는 희망찬 내일을 위한 '화려한 축제'였다)과 6월 대투쟁과의 비교를 자주 화제로 올린다. 집권여당 민자당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와 6월 대투쟁은 다르다고 자주 말한다. 시민의 참여 운운하면서 말이다. 확실히 이번 5월 투쟁이 집회와 시위의 열기와 특히 대중의 동원정도에서 6월 대투쟁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5월 투쟁은 우리에게 주목되는 특징이 있다. 아직 섯부른 평가이겠지만 신세계며, 종로, 을지로, 명동일대를 나다녀 본 사람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서 이번 투쟁은 6월 대투쟁이 미처 이루지 못했던 조직적 대응 양상을 확고하게 보여주었다. 내무장관의 경질이나, 전경의 구속 그리고 내각개편등으로도 가볍게 '수습'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각계각층의 대중을 하나의 단일한 대오로 결속시킬 수 있었던 조직이라는 '무기'가 가져 온 결과였다. 대중은 이제 자신의 요구를 자신의 대표자를 중심으로한 스스로의 조직 및 단체를 통해 솟아 낼 수 있는 세련된 대중이 되었다. 이것이 6월 대투쟁이 가져다 준 참된 의미의 성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울러 어느 시인이 항변했던 단순한 '절망의 몸부림'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이해 득실과 명분의 상호관계를 기술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생동하는 실천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 대중의 정서와 상태에 조응한 투쟁을 구사하고자 노력한 지도부뿐 아니라 대중 스스로도 투쟁의 정치함수를 올바로 이해했으며, 정세에 대한 생동하는 대응에 발맞추어 나갔다. 강경대 열사의 장례식과 노제를 통해서 보여 준 혼연일치된 모습은 어느 축제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공동체적 살아있는 미를 구현한 것이었다. 투쟁을 핏발과 구호로만 하는 대중이 아니라 기쁨과 여유를 섞어 내는 대중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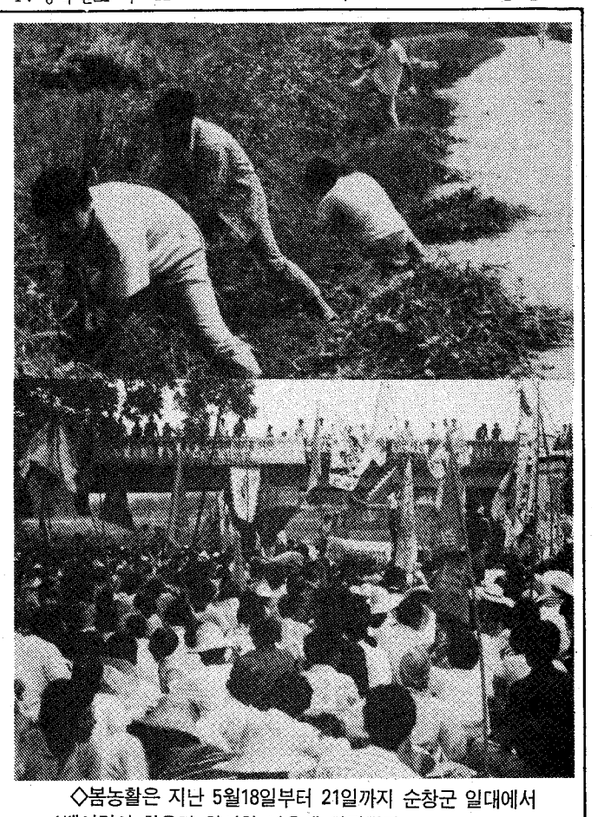
이 모든 것이 6월 대투쟁이 없었다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일 것이다. '87년 6월의 뜨거웠던 여름의 햇살 아래에서 '독재타도'를 목 놓아 외쳤던 시민·학생들은 오늘도 또 다시 만나 시내 곳곳을 우렁찬 함성으로 수놓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전국 방방곡곡의 도시며 농촌에서 5월 투쟁의 열기는 사그러 들지 않고 있으며, 성숙해진 대중의 정치력이 기만적 내각개편이나 선거국면으로의 전환시도로 가볍게 무시되어 지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6월 대투쟁의 '세례'를 받은 우리이기때문이다.

자주 민주 통일의 대장정에서 6월 대투쟁은 언제나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길 거부하고 현실의 살아있는 전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세대가 경험한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 의해 역사적 인간이며, 시대의 창조자일 것이다.

이 석 재
〈대학원 석사1기·철학〉

농민과의 한마당

투고…봄농활 평가 및 하계농활 점검



◇봄농활은 지난 5월18일부터 21일까지 순창군 일대에서 1백여명의 학우가 참여한 가운데 치뤄졌다

봄 농활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준비활동과 본활동, 그리고 후속활동으로 나누어서 해야하나 이번농활의 형식과 내용이 농활의 본래적인 요구인 농업·농민문제의 선전, 교양을 통한 농민 의식화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의미에서 성과와 오류를 짚어보고, 극복되어야 하는 것과 총평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농활은 일정정도 학생회의 조직정비에 도움이 되었다. 이는 참여한 학우들이 학생회 사업에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농민들의 곡식을 키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학생들의 조직강화에 의미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굳이 성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봄농활을 통해 농촌현장의 농민들 또한 당면의 투쟁사안에 대해 피부적으로나마 느끼고 있으며 이것의 의식적인 표출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일손이 바쁜 농번기라는 것이지만, 간접적으로는 농민운동의 지도역량이 농민들의 자그마한 진출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에 반해 준비기간에 있어서 투쟁사업과 연대사업의 관계를 올바로 해명하지 못하고 근거없는 논리로 농활수행을 방기한 점, 장기적·체계적인 준비 활동이 부족하여 이를 본활동의 수행으로 덮어버리려는 사업작품이 나타난 점등은 빼놓을 수 없는 오류로 지적되었다.

이밖에 정세교양의 부족은 당면 투쟁상황을 외우는 정도로 그쳐 버리게 했다. 광역의회에 대한 교양이 부족하여 광역의회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봄농활의 쟁취목표는 무엇인가. 조직적으로는 농학연대사업의 팀단위까지의 건설과 확고한 주체로의 올라섬, 봄농활의 수행으로 학우들과 농민대중들 사이에 농활에 대한 분위기를 고양시켜 농활의 저변역량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불어 정치적 쟁취목표는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당면 투쟁전선의 확대(이를 위해 농활에 참여하는 학우들에 대한 당면 투쟁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공유작업을 수행하였다)와 사회적 부의 생산의 기회가 적음으로 인해 학우들내에 존재할 수 있는 관념성, 추상성을 극복하고 농민의 건강한 품성을 배우는 계기로의 활용에 있다.

연대사업의 올바른 관계 필요
체계적 준비 통한 여름농활 힘써야

이상의 조직적·정치적 목표에 맞추어 이번 농활을 요약해보면 첫째, 총학생회 책임주체가 튼튼히 서서 농활의 전반적인 흐름을 잡은 학교는 투쟁의 폭발적인 전개로 인해 농활 수행 불가능의 논쟁을 딛고 연대사업을 진행시키는 활동력을 보여 주었다. 둘째, 봄농활의 쟁취목표인 조직적으로는 주체의 건설과 운영이 성공적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서울지역의 투쟁열기를 농촌으로 파급하여 5·4투쟁, 5·9투쟁, 5·18투쟁에서와 같이 활동가 몇몇만이 직접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벗어나 반노투쟁전선의 확대에 기여했다. 이의 가시화는 하반기 농민투쟁으로 나타날 것이다. 셋째, 전체적으로는 초기의 '농학연대 자체의 의미'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운영위, 집행부등의 논의과정을 통해 정치적인 요구(투쟁전선의 확대를 받아안았으며 통일전선 운동으로의 확고한 발전을 이루는 의미)를 실천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제 오는 28일부터 7월7일까지 실시될 여름농활이 다가오고 있다. 여름농활은 팀마다 봄농활의 성과물로 세워진 후속활동 주체의 조사, 연구 작업으로 활동의 꽃을 피우는 농활이다. 이 여름농활을 어떻게 하면 좀더 조직적이고 대중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폭을 지금부터 넓히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윤 애 경
〈생물·4〉

朔風

'표피적인 지식만을 습득하는 고등 놈팽이'

"우리 사회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말로 심각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西江大 朴弘 총장이 얼마 전 어느 일간지 대담에서 '요즘 대학생들은 고등 놈팽이들입니다'하여 또 한번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기회와 제목을 던져주었다. 불교식으로 하자면 話頭를 준 셈이다.

가장 '진보적'인 총장들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던 인물인데다 평소 학생들과 부딪치고 토의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는 그분의 사람됨을 감안할 때 이 말은 요즘의 대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생을 둔 부모, 그리고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와 있는 나같은 사람들에까지 '과연 그런가'하는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朴총장은 이어 요즘 대학생들이 고등 놈팽이인 이유를 '깊은 책은 읽지 않고 표피적인 지식만 습득한 결과 편견과 고집만 강할 뿐 사물의 전체를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고 부연하였다.

물론 이 말은 일반론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요즘 대학생들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지 몇년이 흘러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세상에 뭐 좀 보태고 갚아야 하는 처지에 서서 생각해보니 朴총장의 이말은 바로 나, 그리고 재학생인 후배들을 포함해 대학생이거나 대학생이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절실한 충고로 들리는 것은 왜일까?

사회가 격변하는 시기에는 온갖 이데올로기가 넘쳐나서 이 방면의 정보량이 폭주한다. 반면에 '체제유지 세력'은 그같은 정보의 흐름을 한사코 차단하기 위해 필사적이 된다. 그럴수록 학생들은 사회과학 분야의 특정 정보에 목마르게 되고 그런 것을 찾아 헤매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금서였던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북한에서 간행된 서적과 국내의 운동권에서 펴낸 '불온 책자', 그리고 몇몇 수난당하는 작가, 시인들의 책들을 마치 무슨 성서나 되는 듯 찾아 읽기에 바빴고, 그러다 보니 대학 4년이 후딱 지나가는 것이었다.

이처럼 독서의 편식을 하면서 4년을 보낸 후에 문득 뒤돌아보니 나는 "莊子"도 "國家論"도 "명상록"도 "神曲"도 "史記"도 "歷史의 硏究"도… 그 하늘의 별같은 고전들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읽은 것이 없음을 소스라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그랬고, 현역 대학 총장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리켜 '고등 놈팽이'라고 하는 걸 보아 요즘의 후배들도 사정이 별로 나아지지는 않은 모양이라고 짐작이 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정치적 수사를 흉내내자면 비민주적인 체제 때문에 학생들이 '역사 변혁에 복무하기 위하여' 마음의 양식 따위는 돌볼 겨를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교의 교육 방법이 늘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 입시지옥의 중고등학교 교육까지도 재판대에 올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학생 개개인의 자기 인생,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과 의무, 즉 좀더 고양되고, 좀더 지혜로워야 하며, 좀더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절대적 책임을 대신 져 줄 대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시위도 열심히 하고, 미팅도 열심히 하자. 그러나 돌아와서 책 읽는 시간을 아끼지 말자.

〈不 여우〉

일어, 중국어, 영어회화의 명문

삼육외국어학원

You Too Can Speak English
あなたも日本語が話せます
你也能說華語

• S·D·A는 미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등 각국이 자매학원으로 운영되는 외국어 회화의 전문교육기관입니다.
• 우리나라에는 휘경동, 영동, 남영, 신림, 인천, 춘천, 청주,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서면, 영주동, 제주에 학원이 있습니다.

각 학원 선착순 모집
개강 : 7월 2일
6월초순에 문의바람
⊙전원 외국인 강사
⊙어학실습실 완비
⊙학습과정 및 장소
일본어 - 서울(휘경동), 남영, 대전, 서면
중국어 - 서울(휘경동)
영 어 - 전국 14곳

☎ 244-1275, 7521, 543-2270, 706-3615, 889-4636

패션은 국제적 수준의 패션감각을 갖춘 패션 스페셜리스트의 육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학특강모집요강

■ 교육과정

개설학과	수준	시간	연수기간	수업일수	수강료
FASHION ILLUSTRATION (기초고급) • Illust • 색채구성 • 크로키	기초	오전	7 주	주 5일	₩150,000
	고급	오후			
DRAPING		오후	7 주	주 3일	₩180,000
C. A. D (Computer Aided Design)		오전 오후	7 주	주 3일	₩190,000

※ 위의 과목은 야간에 정규과정으로도 개설되어 있음.

■ 교육기간 : 7월 1일(월)~8월 17일 (토)
■ 모집대상 : 의상계, 비의상계 대학 재학생
■ 모집인원 : 각 과마다 12~35명
■ 수업시간 : 오전반 9 : 30~12 : 30
오후반 1 : 30~4 : 30
■ 접 수 : 6월 1일부터 선착순
■ 특강생을 위한 교육 및 시설안내
• Fashion Library : 패션 정보지 및 패션 전문도서
• Video Library : 해외 Fashion Event, 유명 Designer Collection.
• 상설전시실 : Merchandising Map 전시 Illustration 전시
■ 문 의 : TEL 548-3567~9
■ 주 소 : 강남구 신사동 584-3

코오롱패션산업연구원

디자인
방/학/특/강
2
하루3
시간이면 됩니다!

디자인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19년 전통의 우석에서 첨단디자인 세계에 입문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1.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교육과목	교육내용	모집정원	수료기간
그라픽디자인	광고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 포스타·팩케이지·편집	20명	2個月
인테리어디자인	도학·기초디자인 실내공간설계·가구디자인	20명	2個月
디스플레이	패션일러스트 디스플레이·코디네이션	20명	2個月
투시도	실내외 투시도 작도 칼라링·공업렌더링	20명	2個月

1. 접수마감 : 1991. 6. 28(金) 까지
1. 입학자격 : 전문대 및 대학재학생에 한함(전공과 무관)
1. 교육기간 : 1991. 7. 1(月)~8. 30(金) 까지

※ 본 방학특강은 우석디자인 연구소가 교육을 전담합니다.

디자인敎育의 名家
우석디자인학원
WOOSOK DESIGN ACADEMY
홍익大옆 友石B/D(학원) 新우석B/D(연구소)
안내전화 : 333-4018(대표) 338-3838(대표)

英·日·中·露·独·佛語
외국어학원
외국어교육의 센터
BE WINNERS
대표전화 739-8000, 7000, 6000
종로 YMCA 건너편 양우당서적코너 빌딩